

42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

사무엘상 1, 3, 7장



한나는 결혼을 했지만 자식이 없어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 주셔서 한나는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였습니다. 한나는 젖 떼 때까지 사무엘을 기른 후,
성막으로 데려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어느 날 어린 사무엘이 누워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가 부른 줄로 알고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사무엘 : 저를 부르셨어요?

제사장 :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으니 가서 자거라.

사무엘은 다시 가서 누웠습니다.

이런 일이 세 번이나 있을 후 비로소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줄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사장 :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거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하라.

다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자 사무엘은 제사장이 가르쳐 준 대로 대답하였습니다.

성경 암송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상 3:10)

하나님 :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 :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 집안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 많아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사무엘과 함께하셨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은 항상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 오랫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숭배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또한 사무엘은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고 백성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짖었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천둥과 번개를 내리셨습니다. 이것에 놀란 블레셋 사람들은 도망쳤고,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사무엘이 사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사는 날 동안 벤텔, 길갈, 미스바, 라마 등 이스라엘 여러 곳을 두루 다니며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나오미의 말을 듣고 룯과 오르바는 각각 어떻게 하였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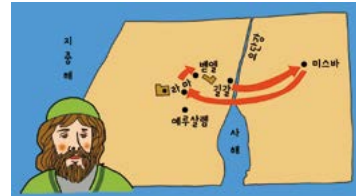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사무엘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좇아 어떻게 행했는지 그림과 말씀을 참고하여 써 보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우상을 버리고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사무엘상 7:3~4

사무엘상 7:9

사무엘상 7:15~17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말씀을 듣나요? 다음 중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골라 보세요. ()

① 맨날 똑같은 말씀. 이제 지겨워!

② 말씀 잘 들었으니까 오늘은 신나게 게임해야지!

③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실천해야겠다.



말씀을 듣고 실천해요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귀로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도 사무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4-6장 중 한 장을 골라 읽고 그 중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말씀을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하신 말씀

(에베소서 장 절)



위에서 찾은 말씀을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실천했는지, 또 그 결과는 어땠는지 써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13)

예화



삶의 중심

어떤 마을에 부자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 그들이 살 길을 찾을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에게 금고 열쇠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 왜 열쇠를 달라는 거니?

아들 : 아버지의 그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 드리려고요.

아버지 : 기도를 이루어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아버지는 아들을 꾸짖었습니다.

아들 : 금고를 열어 놓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그런 기도를 하세요. 실천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읽거나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잖아요.



부모님난

선생님난